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8일 (음력 4월 4일) 금요일

‘민주묘지 9만명 참배’ 5·18 추모 분위기 절정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전국 각지서 추모 발길 이어져

학생들·동호회 등 단체 참배객 눈길...“죽음 무릅쓴 열사들 자랑스러워”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묘지에 전국 각지에서 9만 여명의 참배객들이 다녀가는 등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주의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5월 영령들에게 헌화·분향했다.

학교 단위로 온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동호회,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단체 참배객 등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열사들의 묘비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오월 영령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역사유적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묘지를 찾은 봉주초, 대지초, 신암초, 용두초 34명의 초·중·고등학생들도 유가족들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숙연해졌다. 김보경(대지초 5학년) 양은 “후세를 위해 희생한 열사가 많

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픔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유영봉안소를 찾은 참배객들은 열사들의 영정 앞에서 그들의 거룩한 희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기렸다.

강진 청암중학교에서 민주묘지를 찾은 1·2학년 학생 75명도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최민우(15) 군은 “열사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 지 짐작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김도윤(15) 군은 “죽

음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민주주의와 정의의 불을 외친 열사가 자랑스럽다”며 참배를 하고 난 소회를 밝혔다.

대구에서 5·18 전야제 농악공연을 위해 단원들과 민주묘지를 찾은 손석철(50)씨는 “언론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씻어내고 민주주의의 기념비로 새긴 현장이다”고 말했다. 또 “타 지역에 가서도 5·18의 진실을 많이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지난 16일 하루에만 2만1820명이 다녀갔으며, 추모기간인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누적 참배객은 9만18748명이다.

신봉우 기자



한국노총, 5·18 민주묘역 참배 영령들 넋 기려

“5월 희생정신 이어 받아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다짐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제38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을 참배해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5·18 정신을 되새겼다.

한국노총 김명환 상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충청·호남권 대표자 50여명은 이날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민주항쟁 당시 희생

된 분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 넋을 추모했다.

김명환 상임부위원장은 “5·18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겠느냐”며 “한국노총은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

가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신원 전남본부 의장은 “우리가 투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족을 향한 민주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영령들 앞에서 다짐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건부들과 권역별 교육에 참가한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 50여명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5월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영령들의 넋을 기릴 계획이다.

최남규 기자

석가탄신일 휴무로 다음호 23일자 발행합니다



끼리끼리

김계관 북한 외무성제1부장이 10일 ‘핵 포기만강요’를 둘러싼 대외에서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북이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말발들이 미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부상은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둘러서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나, 원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하는 주장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 강경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봉기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준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광주지역 학생들, 오늘 ‘5·18 주먹밥’ 먹는다

212개교 급식... 지난해비 89개교 늘어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맞아 항쟁 당시 나눔공공체의 상징이었던 ‘주먹밥’을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먹밥 급식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체 317개 학교 중 212개 학교로 지난해보다 89개교가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154개교 중 86%에 해당하는 132개교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주먹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침 등굣길에 학부모들이 직접 나와 주먹밥 나눔 행사를 펼친다.

광주시교육청도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구내식당 메뉴로 주먹밥을 제공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나눔 정신을 되새겼다.

광주시교육청 김성남 체육복지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이런 노력들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이 실천했던 5·18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The 19th
2018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8.5.18(금) ~ 5.20(일)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 / 홍길동 테마파크

KBS 전국노래자랑 5.19(토) 오후 1시 본선 녹화

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 축제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5.18 ~ 27(10일간)

주최 Jangseong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후원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